

버너드 쇼의 합리주의적 종교관과 *Saint Joan**

엄 태 용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I. 서론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2000년대 후반 한 통신회사의 TV 광고에서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 버너드 쇼”라는 명언을 접한 적 있을 것이다. 광고를 위한 의도적인 오역인 이 명언의 원문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이고, 세간에 조지 버너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묘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이 영문이 새겨진 낡은 묘비의 이미지가 쉽게 검색된다. 그러나 버너드 쇼는 묘비가 없기에 묘비명도 없다. 이 명언이 버너드 쇼의 발언임을 입증할 만한 문헌적 기록도 현재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¹⁾ 1950년 11월 2일에 95세의 나이로 타계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8580)

1)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2021년 2월 초에 국제버너드쇼학회(International Shaw Society, ISS)를 통해 스페인 에스트레마두라대학교(Universidad de Extremadura)의 구스타보 로드리게스 마르틴(Gustavo A. Rodríguez Martín) 교수를 소개받아 자문을 구한 적 있다. 로드리게스 마르틴 교수는 ISS가 공인하는 현존 최고의 버

버너드 쇼는 화장되었고, 그의 유분은 7년 전에 먼저 사망한 아내의 유분과 섞이어 영국 하트퍼드셔(Hertfordshire) 주 아웃세인트로렌스(Ayot St Lawrence)의 자택 정원 주변에 뿌려졌다. 쇼의 묘비를 대신하여 이 시골 저택 정원의 한편에 자리한 조그만 성 존(Saint Joan) 동상이 쇼를 추모하고자 방문하는 셰이비언들(Shavians)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쇼가 작고하기 몇 년 전에 이웃의 한 미술가에게 의뢰하여 처음 만들었던 이 동상은 1960년대에 도난과 훼손을 당한 바 있다. 이후 1993년에야 복원되어 현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성 존 동상은 쇼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 준 희곡 『성 존』(Saint Joan, 1923)의 문학적 위상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전사의 복장이 아닌 시골처녀의 모습, 즉 계시를 받았던 시절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순수성을 간직한 한 인간의 소박한 면모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 존』은 쇼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신앙과 교회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운 토론극이며 쇼의 유일한 비극이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개인의 도덕성과 합리적 판단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숭고한 희생으로 귀결된다.

종교의 필연성과 순기능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필자는 종교가 인간사회의 굳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종교 혹은 종교적 초월의 경지 또한 보편적인 합리성과 윤리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사고가 문명의 보편적 토대로 안착한 현대 세계에서도 일부 종교 교역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광신적 선동에 의한 일부 신도들의 이성적 판단 상실의 행위들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 선을 위해 종교를 억압하고 금지해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종교의 지고지순한 헌신과 선한

너드 쇼 서지학자이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 다른 한국인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버너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알려진 명언을 쇼가 말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재차 답변하였다. 또한 첨언을 통해 쇼가 1938년 11월에 앨프레드 더글러스(Alfred Douglas)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묘비명으로 하나의 “광시”(nonsense verse)를 가볍게 제시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예의 그 명언과는 거리가 멀었다. 참고로 로드리게스 마르틴 교수가 언급한 ‘다른 한국인’은 필자의 검색 결과 인터넷매체 <팩트체크넷>의 시민팩트체커 이혜림 씨이다.

영향력의 전파가 긍정적 사회변화로 이어진 사례들도 알고 있다. 손양원 목사, 허병섭 목사, 지울 스님,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이태석 신부 같은 살신성인의 삶을 사신 성직자들의 공통점이라면 보통 사람들과는 경지가 다른 지극한 종교적 신념일 것이다. 고결한 성직자들의 자기희생은 종교적인 행위인 동시에 숭고한 덕행이고, 거기에는 그 행위가 타당함을 확인하고 올바른을 인정하는 도덕적 기준과 합리적 사고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행위로서 합리주의(rationalism)의 기본 태도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뿌리내린 인류의 보편적인 덕목들도 객관적 사실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반한 인간 양심의 이성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인 동시에 합리주의적 태도로 보아야 한다. 이때의 합리주의는 개인의 이익에 따른 통속적인 이해타산과 구별되는 것은 물론 이성지상주의에 가까운 철학 사조에서의 합리주의, 즉 합리론(rationalism)과도 식별되어야 한다²⁾.

통상 종교와 합리주의는 상호 대립적인 갈등의 요소와 배타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가 어떤 교리에 대한 믿음 혹은 믿음의 체계를 의미하는 신조(creed)와 그 신조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으로 구성되는 주관적 정신의 영역에 가깝다면, 합리주의는 어떤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 및 판단을 중시하는 이성적, 과학적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의 영위와 발전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지식을 구하기 위해 합리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2) 영어 ‘rationalism’은 우리말로 합리론, 합리주의, 이성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합리론’은 주로 경험론(empiricism)의 대척점에 있는 이성만능주의적인 철학 사조를 지칭할 때 쓰인다. ‘합리주의’는 문맥에 따라 ‘합리론’과 동의어인 경우가 있고, 평소에 합리적 사고 및 판단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할 때도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합리주의는 삶의 태도로서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후자의 입장을 의미하며, 이성이 진리의 근원으로서 이성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철학 사조 ‘합리론’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영어의 ‘rationalism’은 문맥에 따라 ‘합리론’ 혹은 ‘합리주의’의 의미로 명확한 구별 없이 혼용되는 반면, 우리말 기표 ‘합리론’과 ‘합리주의’의 구별은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그러한 지식 및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번뇌나 인간적인 유한함을 극복하고자 자기 초월적인 어떤 완성 혹은 전능을 지향하는 종교적 삶에 의탁하고자 한다. 여기서 종교적 삶이란 기성종교를 수용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추상적인 소망, 이상, 사상, 신념, 우상 등을 위해 주관적인 방식으로 충실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눈부신 과학의 발견 및 성과를 누리는 현대인들의 일상에서도 종교적 삶의 방식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속성이자 삶의 한 방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교 혹은 종교적 신념과 보편타당한 합리주의적 태도를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삶의 유지와 고양에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난 10여 년간 버너드 쇼를 연구해온 필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문학 속에서 종교에 관한 진지한 성찰의 기록들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쇼의 종교에 관한 진단의 글들이 사회주의적 신념에 대한 진술 못지않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중 희곡 『성 존』이 그의 종교적 신념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쇼의 종교적 신념은 우주의 궁극적 목적 혹은 신성을 향한 생명력(Life Force)과 창조적 진화(Creative Evolution)의 진보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합리주의적 사고가 두텁게 깔려 있고, 그 사고의 기준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며, 쇼에게 있어 도덕의 향상이 없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이 극에서 합리주의가 짙게 밴 쇼의 종교적 신념은 평범한 처녀에서 전사가 되고, 후에 성인(saint)이 된 주인공 존(John)의 신앙적, 도덕적 의지(will)와 생명력의 진보를 통해 표출된다. 강렬한 신앙심과 합리주의적 태도가 융화된 존의 삶과 죽음은 다름 아닌 창조적 진화의 인간적 승화이자 현실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의 학술논문에서도 『성 존』에 담긴 쇼의 종교적 신념이 적지 않게 논의되었으나, 쇼의 종교관을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진단한 경우는 아직 없다. 일찍이 장은명이 발표한 「Bernard Shaw의 Saint Joan 연구」(1983)는 쇼의 진술에 근거하여 성 존을 생명력의 구현체로 확인한 점에서는 타당했으나, 초인(Superman)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존을 바로 초인으로 등치시키면서 천재, 성인, 신, 초인을 구별하지 않아 애매모호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2000년대 이

후 쇼의 창조적 진화와 생명력을 주제로 삼은 연구가 대폭 늘어났다. 박성환은 「쇼의 『성 조운』과 창조적 진화론에 대한 고찰」(2001)에서 창조적 진화론이 쇼의 종교임을 언급하면서도 영웅적인 개인의 의지를 세상의 원동력으로 삼는 고독한 신념 정도로만 진단한 결과, 생명력이 우주적 원리이고 생명력이 지닌 의지의 발현이 창조적 진화로 이어진다는 쇼의 초인간적 종교관을 예시하지는 못했다. 서용득은 「변함없는 여인: *Saint Joan*의 Joan에 대한 연구」(2002)에서 쇼가 인간의 도리, 윤리적 측면, 프로테스탄트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고자 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존이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그녀를 억압한 종교인들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논지에서, 또한 존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휘라고 단정한다는 점에서 쇼가 촘촘하게 배치한 리얼리즘과 합리주의의 인자들을 찾아내지 못한 채 쇼의 종교관을 신비주의 쪽으로 몰고 갔다. 최경희는 「*Saint Joan*과 쇼의 역사의식」(2008)에서 쇼가 “19세기 동시대의 입장에서” 포괄적 진실을 위해 “역사적 세부 사실”을 경시했다고 진술하는데(88), 쇼는 존의 역사적 상황을 20세기 관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 사실들을 재현하였고 서문(Preface)에서 극화에 따른 불가피한 오해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장금희는 「『성녀 조안』에 나타난 쇼와 버틀러의 도덕률」(2014)에서 쇼의 생명력에 관한 종교적 신념과 도덕성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다만, 존의 도덕성이 객관적 가치에 의거하는 합리주의적 태도와 결부되어 있음은 거론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의 연구성과 중에서는 스투어트 베이커(Stuart E. Baker)의 저서 『버너드 쇼의 굉장한 종교』(*Bernard Shaw's Remarkable Religion*, 2002)가 필자의 문제 의식과 비슷한 논지를 전개하였다. 베이커에 따르면 쇼의 리얼리즘은 논리적인 정직한 관찰에 의거하는 “과학적인 종교”(scientific religion)와 “성령”(Holy Ghost)이 관찰 가능한 사실임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과학”(religious science)의 상호보완을 추구한다고 한다(“Introduction” xvi-xvii). 쇼는 현실세계의 삶에 합당한 지침이 되고 사실과 논리에 부합하는 신앙(faith)을 수립하고자 했다(Baker 3, 14). 베이커는 쇼의 합리주의적 신앙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도덕의 역할을 덜 강조했지만, 쇼가 “도덕적, 사회적 세계”(the moral and social world)에 헌신했고

(5), 도덕적 평등(moral equality)에 대한 신념이 있었으며(17, 23), 그것을 위한 개인의 의지(individual will)를 증시했다고(38) 말함으로써 쇼의 종교관에서 도덕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쇼의 합리주의적인 종교관의 형성을 고찰하고, 이어서 생명력과 창조적 진화론이 이론적으로 구체화된 쇼의 종교적 신념임을 확인한 후, 초인의 개념과 의미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쇼의 합리주의적 종교관이 『성 존』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형상화되어 그 형용모순적 개념이 이해되고 완결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쇼는 초기 저술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관점과 개념에서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가이다. 그럼에도 일부 견해와 개념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고 정리하기 위해 해외 학자들의 2차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쇼가 직접 쓴 1차 자료에 의거하여 조사하려 한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쇼의 종교관, 생명력, 창조적 진화론, 초인에 관한 많은 진술과 명제들의 문헌적 출처를 명기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의 진입에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쇼를 제대로 알기 위해 쇼로 돌아가자’를 연구자로서의 모토로 삼고자 한다.

II. 본론

1. 쇼의 합리주의적 종교관

쇼는 초기 저서 『입센주의의 정수』(*The Quintessence of Ibsenism*, 1891)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이성은 다곤 신, 몰록 신, 여호와가 하나로 포괄된 위상에 오른다. 이성의 신봉자들은 유대인 문학가들이 쓴 한 질의 진집[성경]에 얽매어 있던 오랜 예속상태로부터 스스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크게 기뻐한다. [...] 하지만 음악가가 작곡한 소나타를 숭배하는 것이 논리학자가 구성한 삼단논법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당하지 않은가? 적어도 소나타는 경외와 헌신의 감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이성의 숭배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합리론적 “자유사상”은 곧 인신공양 의례가 수반된 삼단 논법 숭배를 의미하기에 이른다.

Reason becomes Dagon, Moloch, and Jehovah rolled into one. Its devotees exult in having freed themselves from the old slavery to a collection of books written by Jewish men of letters. [. . .] but is it not much more sensible to worship a sonata constructed by a musician than to worship a syllogism constructed by a logician, since the sonata may at least inspire feelings of awe and devotion? This does not occur to the votary of reason; and the rationalist “freethinking” soon comes to mean syllogism worship with rites of human sacrifice. (5)

여기서 쇼는 논리적 이성을 신처럼 떠받들고 인간의 감성과 신앙심을 저버리는 합리론자들을 책망한다. 쇼는 감성과 신앙심을 지닌 인간존재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면서 삼단논법으로 대표되는 이성만능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진 논의에서 이성과 추론에 의한 합리화의 예시로 “이단자 화형”(burning a heretic at the stake)을 소개하고 논리적 필연성을 중시한 볼테르(Voltaire)³⁾의 윤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성보다는 “인간의 의지”(man’s will)가 삶과 행위의 원동력임을 제언한다(6). 이성보다는 “살아가려는 의지”(will to live)가 삶의 정수임을 주장한 쇼는 더 나아가 합리론이 삶의 의지의 “위대한 신비”(great mystery)를 고립시킨 것처럼 “유물론”(Materialism)은 “의식”(consciousness)의 위대한 신비를 고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형이상학”(metaphysics)의 존재를 확인한다(7). 주지하다시피 유물론은 이성지상주의, 즉 합리론의 종착지이므로 쇼의 유물론 비판은

3) 흔히 계몽주의자로 알려진 볼테르(François-Marie Arouet, 1694-1778)는 쇼의 생각과는 달리 이성지상주의를 신봉하는 합리론자가 아니다. 사실 볼테르는 이성의 눈으로 가톨릭교회와 성경을 비판했던 이신론자(deist)이며 노예제를 반대하고 인종적 관용을 주장한 자유사상가라는 점에서 오히려 쇼와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다.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감성과 신앙심과 삶의 의지를 중시하는 쇼가 이성의 힘은 불인정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1946년에 미국의 교양잡지 『라이프』(Life)의 편집부는 “쇼는 어떠한 신앙보다도 순수한 사고와 순수한 이성의 인도력을 믿었다”(Shaw believed in the Guiding Force of pure thought and pure reason rather than any faith, Bentley 12)고 평한 적 있다. 물론 이 진술이 쇼가 이성만을 신봉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쇼의 비공식 자서전인 『16편의 자화상』(Sixteen Self Sketches)의 제13장 「나의 종교적 신념은 무엇인가?」(“What is My Religious Faith?”)를 보면 쇼의 이성, 종교, 신념에 관한 정리된 생각을 알 수 있다. 자신은 유아세례를 받았기에 아일랜드성공회 교도라고 운을 떼 쇼는 “성인들의 통공”(the Communion of Saints)과 “영생”(the Life Everlasting)이라는 두 신조를 믿는다고 고백한다(73). 이어서 성공회의 39개조는 너무 자기모순적이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생각”(consecutive thinking, 73)의 소유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쇼는 또한 아타나시우스신조(the Athanasian)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이 신조의 의미를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이지 신앙이 아니다”(understanding and not faith is what the world most needs, 73)로 해석한다고 덧붙인다. 아타나시우스신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수립한 교리로서 성령의 자연적 존재와 영속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쇼는 기성종교를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이성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신조와 영혼 혹은 정신의 영생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한편 쇼가 비판하는 합리론은 “이성이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기이기도 하다는 믿음”(the belief that reason is not only method, but motive, 75)이다. 쇼는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발명할 필요가 있다’(If there were no God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nt one.)는 볼테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성은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줄 수 있지만 . . . [그곳으로] 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reason can discover for you the best way . . . but cannot explain why you should want to go. 75)고 말한다. 즉, 쇼는 다양한 지식과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성적 사고방식, 즉 합리주의적 태도는 긍정하면서도 이성이 어떤 영적 존재의 목적이나 정신적 덕목의 동기까지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신은 무신론자도 합리론자도 유물론자도 아니며, 완전한 신비체인 생기(vitality)를 믿는 “생기론자”(Vitalist)로서 끊임없이 이성과 물질을 다루겠다는 소신을 피력한다(75). 이 때문인지 에릭 벤틀리(Eric Bentley)는 “쇼는 비합리주의를 주장할 때조차 합리주의자이다”(Shaw is a rationalist even in his irrationalism. 13)라고 말한다. 이 진술은 쇼의 합리주의가 이성과 신앙의 절충이자 그 중간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쇼는 사고의 방편으로서 이성의 힘을 신뢰하는 합리주의자일 뿐 이성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합리론자가 아니다. 이성이 해결할 수 없다고 쇼가 생각하는 우주의 기운들은 신, 신앙심, 생기, 의지, 영혼, 양심 등의 영적, 정신적 실체들이므로 쇼는 이신론과 범신론의 중간쯤에 있는 비신비적 종교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필자는 쇼의 종교관을 합리주의적 종교관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2. 생명력과 창조적 진화론의 합리주의

「나의 종교적 신념은 무엇인가?」에서 쇼는 생명력과 창조적 진화에 관해서도 자세히 진술한다. 쇼는 다윈(Charles Darwin)이 발견한 것은 진화가 아니라 우연한 자연선택일 뿐이라고 폄하하면서 “[. . .] 다윈은 자연의 역사에서 목적을 추방함으로써 우주에서 정신을 추방해버렸다”(by banishing purpose from natural history Darwin had [. . .] banished mind from the universe.75)는 사무얼 버틀러(Samuel Butler)의 주장에 동의한다. 또한 버틀러의 주장을 확장하여 과학이 종교의 지위를 대체하게 되었으나 과학에서 “도덕”(morality)이 추방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75-76). 쇼의 진보적 종교관과 사회주의 사상에서 도덕은 핵심 요체이므로 쇼의 입장에서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으로 대변되는 다윈 류의 진화론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쇼는 스스로를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진화론자”(Creative Evolutionist, 77)로 규정하고 그의 용어 생의 약동

(*Élan Vitale*, 78)을 생명력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베르그송의 생의 약동은 그의 저서 『창조적 진화』(*Creative Evolution*, 1907)의 핵심 개념이고 쇼의 생명력은 『인간과 초인』(*Man and Superman*, 1902)의 주요 주제이므로 시기적으로는 ‘생명력’이 ‘생의 약동’보다 먼저 등장했다. 그럼에도 쇼는 희곡 『안드로클레스와 사자』(*Androcles and the Lion*, 1912)의 후기(Afterword)에서 “성령은 베르그송의 생의 약동이다”(the Holy Ghost is the *Élan Vital* of Bergson. 146)라고 진술한 이후 생명력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교화하기 시작한다.

쇼는 「나의 종교적 신념은 무엇인가?」에서 생명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긴다.

양자[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둘 다 자연적 동인의 작동을 감안해야 한다. 이 자연적 동인을 교회는 신의 섭리라 부르고 과학자들은 플로지스톤[열소], 기능적 적응, 자연선택, 자연의 치유력, 필연 신화, 우주설계도 따위로 부른다. 나는 그것을 생명력과 진화적 욕구로 일컬었다. 베르그송은 그것을 ‘생의 약동’으로 일컬었다. 칸트는 정언명법으로,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결과를 아무리 대충 다듬는다 해도 우리의 결과를 갈무리하는 신성”으로 일컬었다. 이것들 모두는 동일한 것, 즉 우리의 제반 환경을 관할하는 더 위대한 힘을 향한, 또한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신비한 충동으로 귀결된다. 이 신비한 충동을 추구하는 남녀 인간들은 탐험가 혹은 순교자로서 죽을 위험을 무릅쓸 것이고, 또한 모든 신중, 모든 가망성, 모든 상식에 반하여 개인적인 안락과 안전을 희생하려 할 것이다.

Both have had to reckon with the operation of a natural agency which the Churches call Providence and the scientists Phlogiston, Functional Adaptation, Natural Selection, *Vis Naturae Medicatrix*⁴⁾, the Necessary Myth, and Design in the Universe. I have called it the Life Force and the Evolutionary Appetite. Bergson called it the *Élan Vitale*, Kant the Categorical Imperative, Shakespear the “divinity that shapes our ends, roughhew them how we will.”⁵⁾ They all come to

4) 라틴어 ‘*Vis medicatrix naturae*’의 저자 오기, ‘healing power of nature’의 뜻

5) *Hamlet* Act 5, Scene 2: 햄릿(Hamlet)이 호레이쇼(Horatio)에게 한 말

the same thing: a mysterious drive towards greater power over our circumstances and deeper understanding of Nature, in pursuit of which men and women will risk death as explorers or martyrs, and sacrifice their personal comfort and safety against all prudence, all probability, all common sense. (78)

이로써 쇼가 생각하는 생명력의 종교적, 철학적 혹은 과학적 고민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세상은 혹은 우주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작동시키는 어떤 기운, 원리, 혹은 ‘신비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다. 쇼의 생명력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 우주에 편재하는 정신적 힘이자 세상의 동인이며, 여기에 도덕성까지 깃들여 있다. 그래서 쇼는 생명력을 칸트의 정언명법에 비유하고, 이 신비한 충동을 위해 개인의 안락을 포기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순교자들의 의지를 상기시킨다. 다만, 쇼의 생명력은 신의 섭리와 같은 전지전능한 무오류의 신성이 아니라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나아가고 때로는 실패한 실험과 실수에 의해 “악의 문제를 야기하기도”(creates the problem of evil) 한다(78). 요컨대 생명력은 시행착오를 무릅쓰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진보시키는 신비한 동력이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본능을 초월하는 의지의 추진력인 셈이다. 그래서 쇼는 생명력의 진보, 즉 창조적 진화가 현 인류인 우리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창조의 결정판이라는”(as if we were Creation’s last word, 79) 생각으로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쇼의 창조적 진화론을 좀 더 종교적 느낌으로 말하자면, 신은 우주를 창조하였으나 우주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에는 관여하지 않고, 우주의 작동과정에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언정 우주는 궁극적으로 신이 설계한 대로 나아가기에 악의 승리가 아닌 선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와 세상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진보적 고민을 해온 리얼리스트(realist) 쇼의 합리적 현실주의이자 낙관적 합리주의이다.

우주를 관통하는 신비한 충동, 기운, 섭리, 의지의 힘으로서의 쇼의 생명력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방점의 위치는 조금 달라진

다. 초기 작품에서는 생명력의 생물학적인 속성이, 즉 두뇌와 성의 작동이 정신적, 철학적 원리 못지않게 부각되고 그 안에 포섭된다. 쇼는 일찍이 평론 『완벽한 바그너식 서사: ‘니벨룽의 반지’에 관한 해설』(*The Perfect Wagnerite: A Commentary on The Nibelung's Ring*, 1898)에서 우리 인간들이 “맹목적 본능의 결과인 것을 논리적 설계에 귀속시킴으로써”(by attributing to logical design what is the result of blind instinct) 천재적인 인간을 신격화하는 행위는 “우주의 창조력”(the creative force of the universe)을 신격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한 적 있다(53). 여기서 우주의 창조력은 이후의 쇼의 지론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명력과 동일한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맹목적 본능을 개인의 욕망이 아닌 우주적 차원의 원리로 격상시키는 쇼의 세계관은 『인간과 초인』에서 “창조적 본능”(creative instinct, 75)을 발산하는 생명력의 의미와 함께 정립된다. 제3막에서 돈 후안(Don Juan)은 “생명”(life)을 가리켜 스스로를 관조하는 더 큰 능력을 성취하고자 부단히 애쓰는 “동력”(force)으로 정의하고(141), 이 생명이 자멸하지 않으려면 “두뇌”(brain)가 필요하다고 말한다(141-42). 생명은 또한 무수한 실험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원초적인 동력을 증강하여 곤충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고차원적인 개별자들”(higher and higher individuals)을 만들어왔다(149). 그리고 생명이 자의식과 자기이해를 성취하기 위해 두뇌를 갖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신체적, 정신적 진화에 “지력”(intellect)이 필수이기 때문이다(150-51). 그런데 돈 후안은 남성으로서 여성을 거부하려 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생명의 힘”(the irresistible force of Life, 155)과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the universal creative energy, 161)에 의해 개인적 차원을 초월한 신성한 남녀 관계를 맺게 된다고 진술한다. 또한 생명력은 자손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marriage)을 존중하며(156),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중심 목적”(The great central purpose of breeding the race)이 생명력을 발휘한다고도 말한다(160). 그래서 돈 후안의 페르소나인 존 태너(John Tanner)는 자신의 결혼 거부에도 계속 쫓아다니는 앤 화이트필드(Ann Whitefield)를 보고 “생명력이군! 내가 졌네”(The Life Force! I am lost. 175)라고 탄식한다. 결국 지적인 통찰과 언변이 탁월한, 즉 천

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인 태너와 항상 적극적으로 매력이 넘치며 자기주도적인 화이트필드는 겉으로는 절대 청혼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생명력의 우주적 설계에 의해 서로 결혼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주지하다시피 천재적인 지력의 남자와 정열적이고 주체적인 여자의 결합에 의한 생명력의 진보는 후속작 『바버러 참령』(*Major Barbara*, 1905)⁶⁾에서도 주요 주제의 하나로서 반복된다.

『바버러 참령』의 더 큰 주제는 “자신은 스스로의 목적보다 더 넓은 목적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는 어떤 의지 혹은 생명력의 도구일 뿐”(he is only the instrument of a Will or Life Force which uses him for purposes wider than his own, “Preface to *Major*” 16)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앤드류 언더샤프트(*Andrew Undershaft*)의 세계관을 딸 바버러(*Barbara*)가 도덕적, 영적 의지로 계승하여 물질과 정신, 선과 악의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하느님의 일”(God’s work, *Major* 151)을 행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바버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살아있는 남자들과 여자들”(living men and women)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151). 그래서 바버러는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느님이 내게 빚지게 하겠다”(let him be in my debt)고 말한다(151). 바버러의 다짐은 하느님이 설계하셨으나 그 작동에 관여하지는 않는 우주의 생명력과 창조적 진화를 믿고 그것에 헌신하는 방편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우주에 또한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 실재하는 작동원리 혹은 섭리를 생명력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안드로클레스와 사자』의 서문(Preface, 1915)에서도 이어진다. 이 서문에서 쇼는 “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이면에 있는 실재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 영혼으로서 [. . .] 진화, 생의 약동, 생명력 등으로 부른다”(the reality

6) 그동안 이 희곡의 제목은 국내 학계와 출판계에서 『바바라 소령』으로 번역되었으나, 2021년에 지만지드라마가 새로운 제목 『참령 바바라』(임성균 옮김)로 출판하였다. 이 새 제목은 구세군대한본영의 용어에 생소한 국내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자는 이를 참고하고 원어 발음을 존중하여 『바버러 참령』으로 옮긴다.

behind the popular belief in God was a creative spirit in ourselves, called [. . .] by us Evolution, Elan Vital, Life Force and other names. 83)라고 진술한다. 이 진술은 쇼가 생명력을 생물학적 차원을 초월한 우주적 섭리로 이해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쇼는 희곡 『상심의 집』 (*Heartbreak House*)의 서문(Preface, 1919)에서 자신을 “완벽한 현대적 사회주의자이자 창조적 진화론자”(the perfect modern Socialist and Creative Evolutionist, 8)로 넌지시 비유한다. 88세에 쓴 『만인을 위한 정치경제학의 이모저모』(*Everybody's Political What's What?*, 1944)에서는 자신을 “창조적 진화의 종이자 도구”(the servant and instrument of creative evolution, 327)로 규정하기도 한다. 쇼가 말하는 창조적 진화는 한마디로 생명력의 의지적 계승이자 목적론적인 진보인데 『므두셀라로의 귀로』(*Back to Methuselah*, 1920)의 서문 「무신앙의 반세기」(“The Infidel Half Century,” 1921)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쇼의 창조적 진화는 신다윈주의(Neo-Darwinism)의 “정황적 선택”(Circumstantial Selection, 11)과 “무의미한 우발적 사고”(senseless accident, 17)에 대항하기 위한 생명력의 목적론적인 진화이다. 이에 따르면 지네의 1백 개의 발, 바다동물의 아가미와 지느러미, 육상동물의 폐와 팔다리, 포유류의 새끼 잉태 능력 등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향한 “활기”(vitality) 혹은 생명력의 작동 결과이다(17). 쇼는 신라마르크주의자(Neo-Lamarckian)를 자처하며 “살아있는 유기체는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변화했다”(living organisms changed because they wanted to. 21)는 라마르크의 주장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형이상학적 보완을 위해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 “의지로서의 세계”(the World as Will, 30)를 수용하여 궁극적 목적 혹은 신성을 향한 “살아가려는 의지”(a will to live, 30)로서의 생명력을 정립한다. 라다크리슈난(Sarvepalli Radhakrishnan)은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는데, 반면 니체는 의지를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while Schopenhauer holds will as a cosmic and universal object, Nietzsche holds it only as individual. Karan 38 재인용)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쇼가 말하는

의지는 니체보다는 쇼펜하우어에 가깝다. 「무신앙의 반세기」에 나타난 살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생명력은 “진화의 추진력”(the driving force behind Evolution, 30) 이고 “진화를 생산하는 추동력은 창조적”(the impulse that produces evolution is creative. 17)이기에, 창조적 진화는 생명력의 의지적, 진보적, 창조적 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쇼는 의지로서의 생명력과 목적론적인 진화론의 종합을 사무엘 버틀러에게서 발견한다. “다윈은 ‘우주로부터 정신을 추방’했다”(Darwin had ‘banished mind from the universe.’ “Infidel” 44)는 버틀러의 명언이 자연선택설에 비판적인 쇼의 뇌리를 예리하게 파고든 것이다. 쇼는 이 명언을 앞서 언급한 「나의 종교적 신념은 무엇인가?」에서 다시 인용한 데 이어, 만년의 역작 『만인을 위한 정치경제학의 이모저모』에서도 또 반복한다(157). 버틀러와 쇼가 과학적 관찰에 근거한 다윈주의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발적 사고들의 기계적인 진화에는 우주적 섭리 혹은 목적을 지향하는 영혼이나 의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와 목적이 없는 생명과 자연의 무의미한 진화를 인정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 결국 쇼의 생명력과 창조적 진화는 모든 생물, 무생물, 인간, 그리고 우주의 방향과 진행은 세상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 섭리, 의지일 수밖에 없다는 쇼의 오랜 철학적, 종교적, 진보적 고민에 대한 합리주의적 귀결인 셈이다.

3. 초인은 누구인가?

쇼의 초인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생명력의 창조적 진화의 (초)인간적 구현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정작 쇼는 초인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하여 말한 적 없다. 그렇다면 쇼의 여러 저술에서 간간히 언급된 초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야 초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쇼는 『바버러 참령』의 서문(1907)에서 ‘초인’(Superman)이란 용어를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위버멘슈”(Übermensch)에서 차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7). 그 전에 쇼는 『완벽한 바

그녀식 서사』(1898)에서 “초인간적 지도”(superhuman guidance, 31)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 있고, 초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과 초인』에서 비로소 처음 전개된다. 제3막에서 돈 후안은 “인류를 번식시킨다는 위대한 중심 목적, 즉 지금은 초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고지에 오를 때까지 인류를 번식시키려는 목적”(The great central purpose of breeding the race: ay, breeding it to heights now deemed superhuman, 160)이 어둠을 뚫고 나왔다고 역설한다. 마왕(the Devil)은 초인이 “확증된 생명력의 숭배자”(a confirmed Life Force worshipper)이며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나 지크프리트(Siegfried)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172). 아나(Ana)는 초인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not yet created)는 마왕의 말을 듣고 초인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만나 초인을 탄생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선언한다(173).

쇼의 저술 중 초인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작품은 『인간과 초인』의 부록인 「혁명가의 지침서」(“The Revolutionist’s Handbook,” 1903)이다. 쇼를 대리하는 가상의 작가 태너(John Tanner)의 주장에 따르면, 19세기는 테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므로 이제 인간(Man)은 신에게 기도하며 회피했었던 모든 일들을 조정해야 하고 스스로 “정치적 신”(political Providence)으로 탈바꿈해야 한다(215). 그는 봉건주의에서 상업주의로, 상업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의 변화 같은 단순한 제도의 변형으로는 세상의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으므로 “인간의 우주적인 열망”(his universal aspiration, 215)을 반영하는 새로운 존재, 즉 초인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우리 인간이 “시행착오”(trial and error, 216)를 거치며 초인을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성령의 신전”(Man is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217)이라는 문구를 진실이라고 믿는 태너는 인간의 두뇌와 손을 통해 발현되는 성령의 도움으로 초인이 태어난다면 “분명 남자의 의도적이고 사려깊은 수완에 의해 여자에게서 태어날”(must be born of Woman by Man’s intentional and well-considered contrivance, 218)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인은 인간의 끝만 번지르르한 온갖 이상들을 경멸하고 “인간의 현재의 인내

력을 넘어서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s beyond present human endurance, 225)를 수용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제도(marriage)와 소유권(property)은 남자와 여자의 자연스러운 성적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초인의 출현을 지연시키고”(delay the advent of the Superman, 219), 또한 “훌륭한 번식에 필수적인 평등”(Equality is essential to a good breeding, 218)을 파괴하므로 “초인의 진화에 적대적”(hostile to the evolution of the Superman, 222)이다. 한편 미국 공산주의자들의 오나이더 공동체(Oneida Community)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이즈(John Humphrey Noyes) 같은 우발적인 초인 한 명이 동료 집단을 설득하는 방식으로는 사회를 개선하기 어렵고, “초인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가 자발적으로 일하려 할”(whole community of Supermen would do spontaneously, 223) 때에야 진정한 사회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태너의 이 같은 생각은 결국 진화에 의해 현 인류를 초인들의 종족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유토피아”(Utopia, 245)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낳고, 또한 근본적인 사회주의는 “인간 진화의 사회주의화”(the socialization [. . .] of human evolution, 245)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쇼는 『부모와 자녀들에 관한 설명문』(*A Treatise on Parents and Children*, 1909)에서는 이 진화의 과정을 초인을 만드는 정확한 제조법을 발견하기 위해 “생명력이 수행하고 있는 위대한 연구의 실험”(an experiment in the Great Research which is being conducted by the Life Force, 85)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므두셀라로의 귀로』의 제1부 「태초에」(“In the Beginning”)에서 살인자 카인(Cain)이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인 “영웅과 초인”(hero and superman)이 있다고 말하자 어머니 이브(Eve)는 “너는 초인이 아니라 적-인간”(You are no superman: you are Anti-Man)이라고 대답하며 파괴적인 삶을 산 아들을 나무란다(102). 제2부 「바나버스 형제의 복음」(“The Gospel of the Brothers Barnabas”)에서 두 형제 콘래드(Conrad)와 프랭클린(Franklyn)은 새로운 인간종의 출현을 위해 인간의 수명을 300년으로 연장하려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한다. 콘래드는 현 인류가 실패작이므로 “고도 문명에 잘 맞게 개조된 새로운 유형의 생명 [초인]이 우리[인간들]를 대체하리라”(a new form of life, better adapted to high

civilization, will supersede us. 152)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덧붙여 프랭클린은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의 이면에 숨은 힘”(the force behind evolution, 153)이 인간보다 더 유능한 대리자들을 생산할 것이며, 인간이 신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낼 것”(He will produce some being who can. 153)이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이 부여한 일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진화의 힘에 의해 신의 유능한 대리자들인 초인의 종족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쇼가 염원하는 초인은 생명력의 위대한 진화의 힘이 인류를 발전적으로 번식시키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성령이 깃든 남자와 여자의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는 세상과 문명의 개혁자이다. 이 세상은 제도의 변형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문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신’과 같은 초인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현 인류를 대체하게 될 하나의 종족 공동체로 출현해야 한다.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이 철폐되어야 더 일찍 출현할 수 있는 초인은 우수한 두뇌와 신체의 소유자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무에 충실한 신의 유능한 대리자이다. 쇼는 우주의 진화와 세상의 진보에 의해 초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진정한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실현된다고 믿었다.

4. 『성 존』: 창조적 진화론의 인간적 승화와 완성

쇼는 종교와 도덕성과 합리주의가 모순됨이 없이 하나의 신념으로 융화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곡 『성 존』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먼저 존의 합리주의적 태도 혹은 사고방식은 제1장에서 보플라(Vaucouleurs) 성의 대장 로벨 드 보드리꾸어(Robert de Baudricourt)가 다음과 같이 물어볼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로벨. 성 까뜨린느와 성 마가렛이 매일 너한테 얘길 한다고 말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나?

존. 사실입니다.

로벨. 성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존 [돌연 완강하게] 그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로벨. 헛대 너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나와 얘길 한다고?

존. 아니, 전혀 다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들은 목소리에 관해 제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로벨. 무슨 말이나? 목소리라고?

존. 제가 무얼 해야 하는지 얘기해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님께서 온 목소리죠.

로벨. 네 상상력에서 온 거겠지.

존. 물론입니다. 이게 하늘님의 신탁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니까요.

빨랑췌. 한 방 먹었군요.

ROBERT. What did you mean when you said that St Catherine and St Margaret talked to you every day?

JOAN. They do.

ROBERT. What are they like?

JOAN [suddenly obstinate] I will tell you nothing about that: they have not given me leave.

ROBERT. But you actually see them; and they talk to you just as I am talking to you?

JOAN. No: it is quite different. I cannot tell you: you must not talk to me about my voices.

ROBERT. How do you mean? voices?

JOAN. I hear voices telling me what to do. They come from God.

ROBERT. They come from your imagination.

JOAN. Of course. That is how the messages of God come to us.

POULENGEY. Checkmate. (68)

성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말해줄 수 없다는 존의 재치있는 답

변은 추가적인 질문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다. 하느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성인들의 말씀을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준수하겠다는 존의 각오는 중세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덕목이므로 그 어느 권력자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탁이 상상력 속에서 성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다는 존의 말 또한 계시의 비과학적인 신비성을 제한하면서 논리적 설득력을 지닌다. 이에 대해 쇼는 이 극의 서문(Preface, 1924)에서 합리적 개연성을 부여한다. 즉 종교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존과 같이 신앙심 깊은 사람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초인간적인 힘”(superpersonal forces, 14)을 갈구하다 보면 상상력의 극화로 그것의 형상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의 이면에는 “진화적인 욕구”(evolutionary appetite, 14)가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존은 계속 이어진 로벨과의 대화에서 잉글랜드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잉글랜드군은 하느님에게 부여받은 그들의 나라와 언어가 있음에도 그들이 프랑스에 침입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다(69). 존은 잉글랜드의 흑태자(Black Prince)가 프랑스 땅에 닿는 순간 악마가 그의 몸에 들어갔다고 비판한다(70). 존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언어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잘 지키도록 의도하셨다”(He gave us our countries and our languages, and meant us to keep to them. 69)고 말한다. 그리고 만일 하느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전장에서 잉글랜드인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죄가 된다고 덧붙인다. 잉글랜드군에 대한 존의 견해에는 “우리 모두는 하늘 왕의 신민”(We are all subject to the King of Heaven. 69)이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당시의 보편적 신념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존은 한발 더 나아가 로벨에게 봉건영주에 충성하지 말고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라고 충고한다. 이처럼 잉글랜드에 맞서 프랑스를 지켜내야 한다는 존의 주장은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도 개입되어 있다. 존의 주장은 또한 봉건 지배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맹아적인 민족주의를 내비치기도 한다. 이를 눈치챈 보베(Beauvais)의 주요 꼬송(Cauchon)은 존의 신앙의 이러한 측면을 “민족주의”(Nationalism, 107)로 일컫는다. 쇼는 이 극

의 서문에서 존을 “최초의 민족주의 사도들 중 한 명”(one of the first apostles of Nationalism, 3)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프랑스 땅에서 영국군을 축출해야 한다는 존의 말은 신앙심과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나온 논리적 주장이었던 것이다.

존의 합리주의적 태도는 복장에서도 나타난다. 존은 로벨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낸 이후 줄곧 단발머리에 군인의 복장을 하고 군인들과 말을 타고 다닌다. 존은 하느님이 성인들을 통해 신탁하신 자신의 소명을 전하고 군대의 지휘권을 요청하고자 왕세자(Dauphin) 샤를(Charles)을 알현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은 군인이기에 군복 차림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 있던 귀족의 부인들이 남자 같은 자신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려도 존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여자로 여겨지는 걸 원하지 않으므로 “여자처럼 입지 않겠다”(I will not dress as a woman, 91)는 존의 각오는 이후의 전장에서도 재차 표명된다. 그런데 여자인 존의 남장 혹은 군인 복장은 당시에 교회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금지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구약 신명기(Deuteronomy) 22장 5절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후에 존의 종교재판에서 재판장인 이단감찰관(Inquisitor)은 남자 복장을 이단(heresy)의 주요 죄목에 포함했으며(128), 검성관(Promoter)⁷⁾ 데스띠베(D'Estivet)도 존의 남자 복장이 “추잡하고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런”(indecent, unnatural, and abominable, 137) 모습이라고 묘사하며 이단의 두 번째 중죄로 발표한다. 하지만 존은 여자 옷 입기를 요구하는 데스띠베의 물음에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여자 옷을 입으면 군인이 아닌 여자로 취급되고 동료들과의 생활이 불편해지리라는 합리적 이유를 든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 옷 거부가 성 까뜨린느의 명령이라는 신앙적 명분도 덧붙인다(138). 쇼는 서문에서 만일 존이 페티코트(petticoats)를 입었다면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며, 존의 군인 복장은 남성 동료들에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도덕적으로 필수적”(morally necessary)이었다고 설명한다(12).

7) ‘Promoter’는 교황청의 검사성성(Holy Office, 이단심문성성)에 속해 있으며 종교 재판에서 검사(prosecutor)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어감과 맥락을 고려하여 ‘검성관’으로 옮긴다.

존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건들에는 합리성 혹은 합리주의를 의심할 만한 이른바 기적들이 있다. 존이 쉬농(Chinon)으로 갈 수 있도록 로벨이 군사적 지원을 허락하자 며칠 동안 알을 낳지 않던 닭들이 마구 알을 낳기 시작한 일화, 쉬농의 성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한 왕세자 샤를을 존이 쉽게 찾아낸 일, 오를레앙(Orleans)의 르와(Loire) 강변에서 잉글랜드군을 공격하기 위해 성 까뜨린느에게 서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말을 발화하자마자 곧바로 서풍이 불기 시작한 자연현상 등이 기적으로 언급된다. 기적이 거듭될수록 하느님의 기적을 가져온다고 소문이 난 성스러운 낭자(the Maid) 존의 신비한 권위는 더욱 높아지고 지휘관 존을 따르는 병사들의 사기도 충천한다. 양자의 상승효과로 존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여섯 번의 연전연승을 이루고 마침내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랑스(Rheims)까지 수복하게 된다. 그러나 예의 사건들을 신비한 기적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우연히 들어맞은 자연현상과 천재적인 인간의 판단 및 직관의 힘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기적의 불가능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작동에도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존에게 못마땅한 랑스의 대주교(Archbishop)는 “기적은 목격하는 자들에게는 경이롭게 보이고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단순해 보인다”(They[Miracles] may seem very wonderful to the people who witness them, and very simple to those who perform them. 79)는 말로 기적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보베의 주교 꼬송은 잉글랜드인들이 마법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capable of a natural explanation, 100) 있으며, 정작 존은 자신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01). 또한 존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신앙의 용기가 [. . .] 분노의 용기보다 항상 더 오래 유지되기”(the courage of faith [. . .] will always outstay the courage of wrath. 101)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존에게 적대적인 두 성직자의 기적에 대한 분석은 종교인답지 않게 합리적이다. 존은 마지막 전투에서 부르고뉴 파(the Burgundian) 병사들에게 사로잡힌 이유에 대해 전장에서 “바보같이”(like a fool) 황금색 덧옷을 입은 자신의 “허세”(vanity) 때문이라고 인정한다(134). 존의 솔직한 고백과 하느님 핑계를 대지 않는 태도는 합리적

사고의 소산으로서 이전의 연전연승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쇼는 서문에서 쉴러(Friedrich Schiller)의 『오를레앙의 처녀』(*Die Jungfrau von Orleans*, 1801)를 “마녀의 가마솥에서 익사한 미친 로맨스”(drowned in a witch’s caldron of raging romance, 24)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성 존』은 신의 계시로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전한 기적은 없으며, 기적 또한 신의 섭리가 자연과 인간에 투입되어 작용한 결과라는 합리주의적 신앙을 보여준다.

존의 합리주의적 사고는 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발휘된다. 제6장에서 공동 재판장을 맡은 보베의 주교 꼬송이 “감히 내가 [. . .] 하느님의 은총 입음을 가장하느냐?”(Dare you pretend [. . .] that you are in a state of grace? 136)고 질책하자 존은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께서 저를 은총으로 인도하소서. 그러하다면, 계속 은총 입게 해 주소서!”(If I am not, may God bring me to it: if I am, may God keep me in it! 136)라고 대답한다. 이 대사는 실제 잔 다르크(Jeanne d’Arc)의 재판 기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존의 깊은 신앙심과 변덕이는 논리적 사고를 확인시켜준다. 합리주의와 결부된 존의 신앙심은 종교재판의 최종 심문 과정에서 스러지는 듯하다가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재판관들의 이단 추궁에 존은 지상의 전투교회(the Church Militant)와 하느님을 분리하고 하느님의 명령이 교회보다 먼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유죄판결에 따라 화형에 처할 것임을 통보받는다. 존은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배석관사 라드버뉴(Ladvenu)의 협박과 유도심문에 굴복하여 “제가 들은 목소리들이 절 속여왔어요. 전 악마들에게 조롱당했어요”(my voices have deceived me. I have been mocked by devils. 140)라고 말하고 이단을 부인하는 개변서(recantation)에 서명한다. 하지만 존은 이단의 파문에서 면제되었을 뿐 그동안 가톨릭교회에 범한 ‘죄악’으로 인해 종신금고형을 선고받는다. 그 순간 성직자를 가장한 악마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존은 개변서를 낚아채어 찢어버리고 쥐구멍 속의 쥐 신세보다는 화형이 두렵지 않다면서 “내가 들은 목소리들이 옳았다”(My voices were right. 143)고 진술을 반복한다. 존은 종신금고형이 자신의 소중한 가치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하느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빼앗는 지옥 같은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하느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화형보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종신금고형을 더 두려워한 것이다. 결국 존은 신성모독과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고 화형대에 서고 만다. 존은 신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의 기로에서 영혼의 구원을 선택했다. 존과 같은 종교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주를 지배하는 영혼과 자신의 영혼 간에 있을 직접적인 영적 교감”(the direct communion of their own spirit with whatever spirit it is that rules the universe, Smith 62)을 참된 믿음으로 여긴다. 존의 초인적인 결단에는 무의미한 육체의 생존보다는 성인들의 목소리를 매개로 하느님과 직접 교감하는 참된 신앙을 택하겠다는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이 극의 제4장에서 워릭 백작(Earl of Warwick)은 “성직자의 관여를 반대하는 개별 정신의 항거”(the protest of the individual soul against the interference of priest), 즉 “항거교”(Protestantism)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래서 쇼는 서문에서 존을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 중 한 명”(one of the first Protestant martyrs, 3)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존의 신앙심은 합리주의적 사고와 맞물려 있으며 그 합리적 판단의 기준은 도덕성이다. 우선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동족인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이민족 영국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것을 위한 전투에 직접 나서겠다는 각오 자체가 논리적이며 도덕적이다. 존은 고향 동레미(Domrémy)에서 촌장의 딸로서 시골 아이들을 돌보며 놀아주었고, 영국군과의 전투에서는 동료들보다 항상 선봉에 서서 연전연승을 이끌었으며, 그에 대한 공로로 통치자들에게 고향 사람들이 “전쟁세”(war tax)를 면제받도록 요청하였다. 존의 도덕적인 행위가 합당함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신앙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의 도덕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때는 화형대에서 죽어가는 최후의 순간이다. 화형대의 불길이 활활 번지는 가운데 라드버뉴가 가까이서 십자가를 들어 보이자 존은 그에게 뒤로 물러서서 몸을 구하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라드버뉴는 워릭 백작에게 “그런 순간에도 타인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주는 여자가 악마에게 흘렸을 리는 없지요. . . . 저는 이 소녀의 구세주께서 그때 가장 자상하신 미관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a girl who could think of another’s

danger in such a moment was not inspired by the devil. . . . I firmly believe that her Savior appeared to her then in His tenderest glory. 148)라고 말한다. 존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간교한 라드버뉴의 술책을 파악하고 굴종을 철회한 적 있다. 극단적인 화형의 고통 속에서도 라드버뉴의 생명을 걱정한 존의 이타심은 ‘원수를 사랑하라’(Love your enemies.)는 성경 가르침의 실천이다. 그 결과 “존의 심장이 기어이 타지 않았다”(Her heart would not burn. 148)는 사실은 순수한 신앙심과 도덕성은 편견과 배제와 폭력의 압박 속에서도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자 희망일 것이다. 요컨대 존의 신앙심, 도덕성, 합리성의 융합은 또 하나의 삼위일체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쇼는 『성 존』의 서문에서 천재(genius)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탐구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범주의 윤리적 인식을 하고 이 특별한 선견지명과 이에 따른 인식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a person who, seeing farther and probing deeper than other people, has a different set of ethical valuations from theirs, and has energy enough to give effect to this extra vision and its valuations, 7)으로 정의한다. 성인(saint)에 대해서는 “영웅적 미덕을 실천해왔고 교회가 엄밀히 초자연적인 것으로 분류한 질서의 계시 혹은 능력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시성의 자격을 갖춘 자”(A saint is one who having practised heroic virtues, and enjoyed revelations or powers of the order which The Church classes technically as supernatural, is eligible for canonization. 8)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지혜와 재치로 상대방을 논리에서 앞서고, 상황 파악의 직관력이 뛰어나며, 시대의 변화를 예지하고, 기존 관례를 깨는 군사적 지휘로 연전연승한 존은 천재이다. 또한 남다른 신앙심과 의기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분투하다가 ‘초인간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 덕에 목적을 이루고, 하느님의 비호를 받는 영험한 처녀로 추앙받았으며, 훗날 가톨릭교회에서 시성된 존은 분명 성인이다. 비록 존이 당대의 통치체제나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다 해도 교육을 받지 않은 문맹 여성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그의 천재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쇼는 성 존(Saint Joan) 서거 500주년 기념 라디오 토크쇼(radio talk, 1931.

5. 31.)에서 “전 세계 기독교도들에게는 존의 죽음과 정말 유사한 사례가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기독교 창시자의 사례이다”(There is a parallel case really to Joan’s which is very well known throughout all Christendom, and that is the case of the Founder of Christianity Himself. Abbott 159 재인용)라고 말한 적 있다. 쇼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존을 독미나리액을 마신 소크라테스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올리고 유배지의 침대에서 편안히 죽은 나폴레옹과는 다른 부류로 간주한다(6). 요컨대 쇼는 존을 “천재이자 성인”(a genius and a saint)으로 규정하고 멜로드라마적인 영웅(heroine)은 아니라고 보았다(7). 하지만 존이 멜로드라마나 로맨스의 주인공과 다르고 나폴레옹과는 다른 형태의 죽음을 선택했어도 존이 나폴레옹 못지않은 프랑스의 영웅인 것만은 틀림없다. 고로 존은 천재이자 영웅이고 성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존은 초인일까? 존이 ‘우수한 두뇌와 신체의 소유자인 동시에 도덕적 의무에 충실한 신의 유능한 대리자’라는 점에서 초인에 근접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존은 인간심리의 작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함 때문에 악과 싸우기 위해 악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명민함”(political acumen)이 없었다(Abbott 163). 즉, “눈치와 세속적 지혜가 부족한”(the lack of tact and worldly wisdom, Kaye 98) 존은 ‘정치적 신’이 될 수 없었다. 자신의 주장이 민족주의와 프로테스탄트주의의 맹아라는 세계사적인 위대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존의 부족한 통찰력은 제도의 변형만으로 불가능한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극의 서문을 보면 존이 생명력과 “진화적 욕구”(evolutionary appetite, 14)의 산물로서 “초인간적인 요구”(superpersonal need, 14)를 발휘한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쇼가 말하는 창조적 진화의 산물로서의 초인은 우발적으로 출현하는 우월한 개인이기보다 세상의 진보를 주도하여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종족 공동체로서의 초인, 즉 현 인류를 대체하여 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초인들의 공동체일 때 실재적인 의미가 있다.

III. 결론

쇼의 합리주의적 종교관은 우주의 본질 혹은 섭리는 생명력이고 생명력의 창조적 진화에 이성의 인도력이 필수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과 합리론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력은 우주와 인간에 내재하는 신비한 충동, 생기, 섭리, 영혼, 도덕성, 의지 등의 다른 표현이자 종합이며, 창조적 진화의 과정에서 본질적인 힘은 생명력의 의지이나 그 의지의 방향성은 이성의 힘이 제어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력의 계승은 일차적으로 생식과 번식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생명력의 의지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로 발휘되어 시행착오의 진화를 통해 문명의 발전과 인류의 개조를 지향한다. 신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인류의 개조와 새로운 문명의 창출을 주도하게 될 ‘정치적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초인이다. 생명력의 창조적 진화가 산출하는 초인은 우수한 두뇌와 신체를 소유하고 도덕적 사명감으로 무장한 신의 유능한 대리자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태어난 개별적인 초인으로서의 문명의 개혁을 완수할 수 없고, 초인들의 종족 공동체가 새로운 인류의 유형으로 출현해야만 신이 설계한 우주의 목적과 인류가 염원하는 신문명의 창조를 실현할 수 있다.

존의 신앙심이 합리주의적 사고와 결부되어 있고, 그 합리적 판단의 기준은 도덕성이며, 그 도덕성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성 존의 신앙심과 합리주의적 사고와 도덕성의 삼위일체는 쇼의 합리주의적 종교관의 문학적 재현이다. 영국군을 프랑스 땅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존의 주장은 성인들의 목소리를 통한 하느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존의 생각은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한 민족주의와 프로테스탄트주의라는 세계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한다. 생명력의 의지적, 목적론적 진보가, 즉 창조적 진화가 이 시대에 이르러 초인에 근접한 천재 존을 우발적으로 탄생시켰고, 존의 연전연승에 힘입어 백년전쟁(Hundred Years' War)의 종전이 앞당겨졌으므로 존의 영웅적인 활약은 중세 봉건제의 몰락과 중앙집권적인 민족국가의 등장에 기여한 셈이다. 하지만 제도의 변형만으로 문명의 진정한 개혁과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신’과 같은 초인의 탄생이 필요한데, 우발적인 한 사람의 초인이 아니라 현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초인들의 공동체가 출현해야 한다. 존은 천재이자 영웅으로서 훗날 성인으로 시성되지만 정치적 통찰력이 없었기에 또한 우발적인 개인이었기에 완전한 초인은 아니다.

완전한 초인을 맞이하기에는 존이 살았던 당대의 역사적 환경이, 존이 시성된 20세기의 사회적 상황이, 엄밀히 말하면 인간들의 수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쇼는 『성 존』의 에필로그(Epilogue)에서 초인을 맞이하지 못하는 현 인류의 도덕성을 질타한다. 1456년에 종교재판의 재심으로 사후에 복권된 존은 환영의 형상으로 프랑스 왕궁에 나타난다. 15년 전 존의 이단 과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생자들과 망자들의 유령들이 1920년의 미래에서 온 사자로부터 존의 시성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성 존을 추앙하고 찬양한다. 하지만 존이 “내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여자로 당신들에게 돌아가도 될까요?”(shall I rise from the dead, and come back to you a living woman? 163)라고 물어보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반대의 뜻을 표하고 도망간다. “인간의 눈은 성인과 이단자를 구별할 수 없으니, 용서해주시오.”(mortal eyes cannot distinguish the saint from the heretic. Spare them. 163)라는 고희 유령의 변명이 현 인류의 도덕적 통찰력의 한계를 적시한다. “이 아름다운 지상을 만드신 하느님, 이곳은 언제쯤 당신의 성인들을 맞이하려 할까요? 얼마나 오래,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O God that madest this beautiful earth, when will it be ready to receive Thy saints? How long, O Lord, how long? 164)라는 존의 대사료 쇼가 이 극을 마무리한 것은 새로운 인류의 출현에 대한 염원을 피력하기 위해서이다.

쇼가 말하는 창조적 진화, 즉 생명력의 의지적 진화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여전히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쇼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즉, 이성을 신뢰하는 과학적 태도와 합리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비물질적이고 목적론적인 내면의 실재 혹은 의지를 어떻게 확신하고 양측을 조화시켰을까? 쇼는 『므두셀라로의 귀로』의 서문 「무신앙의 반세기」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진화가 생명력의 작동방식임을 발견한 이후 형이상학적인 생기론의 종교는 비판적인 지식인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명확성과 구체성을 증대시켜왔다.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생기론의 종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 민중의 종교들은 기회주의적인 추기경들과 주교들에 의해 오명을 뒤집어썼음에도 남몰래 스스로를 신성한 힘과 열망의 도구이자 방편이라고 생각했던 시성된 성인들 덕분에 신앙을 계속 유지해왔다.

Since the discovery of Evolution as the method of the Life Force the religion of metaphysical Vitalism has been gaining the definiteness and concreteness needed to make it assimilable by the educated critical man. But it has always been with us. The popular religions, disgraced by their Opportunist cardinals and bishops, have been kept in credit by canonized saints whose secret was their conception of themselves as the instruments and vehicles of divine power and aspiration: (67)

여기서 쇼는 생명력의 진화를 형이상학적인 생기론(Vitalism)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이 형이상학적 생기론의 유형에 민중의 종교가 있으며, 민중의 종교는 기득권층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의 진정한 사도인 성인들의 헌신에 의해 존속해왔다고 보고 있다. 생기론은 생물체에는 무생물과는 달리 비물리적인 요소인 생의 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민중의 종교를 지탱해온 성인들은 어떠한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신의 가르침과 명령만을 받들며 때론 순교까지 하면서 세상과 민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성직자이다. 쇼의 창조적 진화론은 의지와 목적의 우주에서 주로 생명의 진화에 큰 관심을 두고, 생명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진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진화에는 비물리적인 실재, 삶의 의지, 생의 약동, 혹은 생명력이 작동함을 확신한다. 그런데 이 확신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에 따른 논리가 아니기에 종교적 신념일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이 종교적 신념이 인간의 창조적 진화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의 이타적인 자기희생이, 즉 얼핏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들의 사회적 헌신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사를 발전시켰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이타적인 자기희생은 사회적 이해타산을 초월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도덕적 행위이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하기에 종교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쇼가 수립한 종교적 신념은 이성과 감성과 신앙심을 함께 인정하는 도덕적, 종교적 합리주의이자 사회개혁적 염원으로서 창조적 진화론으로 수렴되고, 문학적으로는 『성 존』으로 형상화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쇼는 「무신앙의 반세기」에서 과거에 둔 후안의 전설을 소재로 하여 “창조적 진화의 연극적인 우화”(a dramatic parable of Creative Evolution)를 쓰고 현란하고 사치스럽게 장식한 적 있으나 그 효과가 현기증이 일어날 만큼 어지러워서 아무도 그 지적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종교”(the new religion)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81). 쇼의 문학에서 생명력과 초인의 용어 및 개념을 처음 제기한 『인간과 초인』이 ‘새로운 종교’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반성은, 또한 쇼가 심혈을 기울여 생명력과 창조적 진화를 설교한 5부작 『므두셀라로의 귀로』가 상상력의 극대화로 리얼리즘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성 존』의 문학적 의의와 가치를 격상시킨다. 도덕성, 합리주의, 생명력, 창조적 진화론이 융합된 『성 존』은 쇼의 리얼리즘의 총체적 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성 존』, 성인, 도덕, 이성, 합리주의, 종교, 생명력, 창조적 진화, 초인

인용 문헌

- Abbott, Anthony S. *Shaw and Christianity*. New York: Seabury P, 1965. Print.
- Baker, Stuart E. *Bernard Shaw's Remarkable Religion*. Florida: UP of Florida, 2002. Print.
- Bentley, Eric. *Bernard Shaw*. New York: Applause, 2002. Print.
- Choi, Kyunghee. “Saint Joan and Shaw’s Sense of History.”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and American Drama 21.1 (2008): 85-107. Print.

[최경희. 「*Saint Joan*과 쇼의 역사의식」. 『현대영미드라마』 21.1 (2008): 85-107.]

Karan, Kashi Kumar. *Bernard Shaw and the Concept of Superman*. New Delhi: Vani Prakashan, 1989. Print.

Kaye, Julian B.. *Bernard Shaw and the Nineteenth-Century Traditio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 1955. Print.

Shaw, George Bernard. *Back to Methuselah*. Charleston: BiblioBazaar, 2006. Print.

---. *Everybody's Political What's What?*.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44. Print.

---. "The Infidel Half Century." *Back to Methuselah*. Charleston: BiblioBazaar, 2006. 9-82. Print.

---. *Major Barbara*. Fairfield (Iowa): 1st World Library Literary Society, 2004. Print.

---. *Man and Superman*. London: Penguin, 2004. Print.

---. *The Perfect Wagnerite: A Commentary on the Niblung's Ring*. Middlesex: Echo Library, 2006. Print.

---. "Preface to *Androcles and the Lion*." *Androcles and the Lion*. Reprinted. USA: Leverton Publishing, 2019. 2-95. Print.

---. "Preface to *Heartbreak House*." *Heartbreak House*. Fairfield: 1st World Library Literary Society, 2004. Print.

---. "Preface to *Major Barbara*." *Pygmalion and Major Barbara*. NY: Bantam, 1992. 3-42. Print.

---. "Preface to *Saint Joan*." *Saint Joan*. London: Penguin, 2003. 3-56. Print.

---. "The Revolutionist's Handbook." *Man and Superman*. London: Penguin, 2004. 215-249. Print.

- . *The Quintessence of Ibsenism*. New York: Dover, 1994. Print.
- . *Saint Joan*. London: Penguin, 2003. Print.
- . *Sixteen Self Sketches*. London: Contable and Company, 1949. Print.
- . *A Treatise on Parents and Children*. Fairfield: 1st World Library Literary Society, 2004. Print.
- Smith, Warren Sylvester, ed. *The Religious Speeches of Bernard Shaw*.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P, 1963. Print.

Bernard Shaw's Rationalistic Religion and *Saint Joan*

Abstract

Eom, Tae-yong (Kangwon National Univ)

This article is aimed at examining how Shaw's rationalistic view of religion was formed, and then at confirming that Life Force and Creative Evolution are Shaw's religious beliefs theoretically embodied and explaining what the meaning of Superman is, all of which are based on Shaw's literary works. Another purpose is to show how Shaw's rationalistic view of religion is converged in his play *Saint Joan* (1923) so that the oxymoron of its concept can be properly understood. While Shaw recognizes religious creeds which can be understood by reasonable mind, he believes that cosmic forces are spiritual and mental realities such as God, vitality, will, spirit and conscience, which cannot be resolved by reason. Therefore, I regard Shaw's religious thought as a rationalistic view of religion between deism and pantheism. Life Force is not a tangible material but the spiritual force omnipresent in the universe and the driving force of the world, and morality is embedded in the force. Creative Evolution can be defined as the volitional, progressive, and creative manifestation of Life Force. Superman is the reformer of the world and civilization, who is born through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by Life Force. Superman should appear as a "political Providence" and a form of community of race that will replace the current mankind. Shaw embodies in *Saint Joan* his faith that a kind of amalgam of religion, morality and rationalism can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humankind. Joan's rationalistic attitude is clearly revealed not only in her witty refutation against the questions of the rulers but also in her conviction of wearing a soldier's uniform all the time. In Joan's rationalistic piety, morality can often be glimpsed, too. Her morality is most

intensely expressed on her dying at the stake. Joan can be said to be a hero, genius and sai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she is a Superman, on considering Shaw's various conditions of Superman. *Saint Joan* can be regarded as the total figuration of Shaw's realism in the light of its convergence of morality, rationalism, Life Force and Creative Evolution.

Key Words *Saint Joan*, saint, morality, reason, rationalism, religion, Life Force, Creative Evolution, Superman

Note on Contributor:

Tae-yong Eom is Lecturer of English educatio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Samcheok.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literature of George Bernard Shaw.

Email: etaeyong@knu.ac.kr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25일

논문심사일: 2022년 11월 28일 ~ 2022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